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20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73:25-28.....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21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9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 안에만 간직되지 않고,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해 선포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가장 큰 영광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요한복음 12:24-26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봉 헌(offering) 4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504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요한복음 12:24-26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1.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24-25절)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2.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게 되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26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보는 눈을 가리게 했고, 설령 보고 깨닫는다고 해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한 알의 밀은 그 자체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지만, 땅에 심겨 죽고 발아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로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채 본성대로 살아가면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본성에 충실하여 오직 자신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죽도록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연어야 할 영생을 잃어버리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옛 자아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살던 옛자아를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곧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귀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존귀는 이토록 다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철저히 자기 생명을 미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 귀한 존재로서 늘 그분의 깊은 호의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자입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